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다큐멘터리 명인 1부 택견 정경화	4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날	1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50 지구촌 뉴스	10		30 SBS 뉴스
00 여성공감 55 바른말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세상의 모든 다큐 낙타 이동도서관	11	00 아름다운 콘서트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10 월화드라마 〈브레인〉	12	00 MBC 뉴스 15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	00 SBS 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1	05 통일전망대 45 지구촌 리포트(재)	30 엄마 아빠와 함께 지구 한바퀴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여성아카데미	30 체험! 삶의 현장	2	10 시추에이션 휴먼다큐 그날 스페셜 55 대한민국 판소리 페스티벌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0 콘서트 필2	00 KBS 뉴스타임 05 쥬로링 동물탐정 35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3	50 MBC 뉴스	10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00 TV 유치원 30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마법천자문	00 안녕 자두야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5	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씨네포트(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6 뉴스타입 10 생생 정보통	6	00 6시 뉴스 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45 스타 인생극장 〈김갑수〉	7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내딸 꽃님이〉
25 일일연속극 〈당신 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위기탈출 넘버원	8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아라〉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00 KBS 뉴스9	55 월화 드라마 〈브레인〉	9	55 MBC월화특별기획 〈계백〉	55 월화 드라마 〈천일의 약속〉
00 가요무대		10		
00 KBS 뉴스라인 40 특별기획	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1	15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5 KBS 뉴스 35 비바 K리그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12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25 나이트라인 45 영광의 도전 내일은 챔피언

EBS

06:00 희망풍경
06:30 신나는 인생 5678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7:10 정글북
07:35 꼬마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08:35 숲 속 친구 파파룰라
08:50 우당탕탕 아이쿠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0 코코몽2
09:25 꼬마거북 프랭클린
09:40 팅가팅가 이야기
10:00 최고의 요리비결 〈김덕녀의 내몸이 원하는 겨울밥상〉
10:30 60분 부모
11:30 세계의 교육현장
12:00 EBS 정오 뉴스
12:10 TV 평생대학 〈역사 이야기〉
13:00 세계테마기행 〈풍요의 땅 레바논〉
13:40 신나는 인생 5678(재)
14:10 EBS 다큐 프라임-교육기획
15: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15:30 꾸러기 상상여행
15:55 딩동댕 유치원(재)
16: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6: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6:45 방귀대장 뿡뿡이(재)
16:55 코코몽2(재)
17:15 숲 속 친구 파파룰라(재)
17:30 캐니얼(재)
17:45 폴리와 함께하는(재)
18:00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1
18:05 우당탕탕 아이쿠
18:15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2
18:20 생물이 생생!
18:30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3
18:35 미술 탐험대
18:45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4
18:50 와글와글 친구들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9:10 정글북
19:35 트랜스포머 프라임
20:00 동물일기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다큐 프라임-교육기획
22:40 EBS 기획특강
23:20 직업의 세계-일인자
00:05 EBS 스페이스-공감

EBS플러스1

04:10 EBS 포스 〈김경한의 적분과 통계〉
05:00 EBS 기본과 특별한 〈곽정원의 수학〉
05:50 〃 〈조연의 한국사〉
06:40 EBS 포스 〈이하영의 수학〉
07:30 EBS 포스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08:20 EBS 탐스런 〈박정연의 한국지리〉
09:10 〃 〈이우현의 정치〉
10:00 선생님 우리 선생님
10:30 TV입학사정관
11:20 EBS 내신 6강 〈정승제의 수학(상)〉
12:10 EBS 포스 〈이은주의 수학〉
13:00 EBS 기본과 특별한 〈박정현의 사회〉
14:00 EBS 포스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15:00 EBS 탐스런〈고재근의 물리〉
16:00 〃 〈박정호의 물리II〉
17:00 EBS 기본과 특별한 (재) 〈곽정원의 수학(상)〉
18:00 〃 〈조연의 한국사〉
19:00 EBS 탐스런 〈박정연의 한국지리〉
20:00 〃 〈이우현의 정치〉
21:00 EBS 포스 〈이하영의 수학〉
22:00 〃 〈이은주의 수학〉

EBS플러스2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초등수학-매스 트레이닝
09:00 EBS TV 중3 〈국어〉
09:40 〃 〈수학3-2〉
10:20 EBS 중3 퍼펙트 체크업 〈국어〉
11:00 EBS TV 중1 〈영어〉
11:50 EBS TV 중2 〈영어〉
12:30 〃 〈수학2-2〉
13:10 EBS 중2 퍼펙트 체크업 〈과학〉
13:50 EBS TV 중3 〈과학〉
14:30 초등 5학년 영어 Fly High
14:50 EBS 클립뱅크
15:10 생물이 생생!
15:20 초등 내공남남 〈국어 3-2〉
15:50 〃 〈국어4-2〉
16:20 〃 〈국어5-2〉
16:50 〃 〈국어6-2〉
17:20 초등 수학-매스 트레이닝
17:50 EBS TV 중1 〈문학1〉
18:30 〃 〈영어〉
19:10 EBS 중1 퍼펙트 체크업 〈수학 1-2〉
19:50 EBS TV 중2 〈영어〉
20:30 〃 〈수학 2-2〉
21:10 EBS TV 중3 〈국어〉
21:50 〃 〈수학 3-2〉
22:30 EBS 중3 퍼펙트 체크업 〈국어〉

장근석 "도쿄돔 공연 꿈 이뤄 행복"

인터뷰 영상·퍼포먼스 등 볼거리… 4만5000 관객 환호

"3년 전 동경에서 첫 팬미팅을 했는데 당시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도쿄돔에서 공연할 날이 올까 싶었는데 4만5000명 앞에 서다니 꿈만 같죠. 아티스트에게 도쿄돔 공연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고 또 전환점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도쿄돔 공연은 중학교 때부터 제 오랜 꿈이었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된다니 피가 끓어요"

한류스타 장근석(24)이 마침내 '꿈의 무대'라 불리는 일본 도쿄돔에 상륙했다.

이번 공연은 '장근석 2011 더 크리쇼 인 도쿄돔 - 더 비기닝'이란 이름으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장근석이 설계한 프린스 월드'라는 주제 아래 사전 인터뷰 영상과 특별 게스트와의 합동 공연, 크레인·자전거·열기구·와이어를 이용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로 채워졌다. 장근석은 이번 무대 연출을 위해 48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다.

장근석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기 비결은 뭘까.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무조건 착하고, 대중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을 예상할 수 없는, 가끔은 돌발 발언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걸 '도에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사디스트(sadist) 적이라고 볼 수 있죠.(웃음) 스스럼없이 질문을 던지고 장난을 치니 어찌 보면 기자나 팬들을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장근석은 성금 1억8000만원을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모교인 한양대에는 성금 12억원을 기부했다.

1993년 아동복 모델로 데뷔한 그는 어느덧 데뷔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장근석은 "20주년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쩌다 보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다"며 웃은 뒤 "일단 국내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디너쇼 투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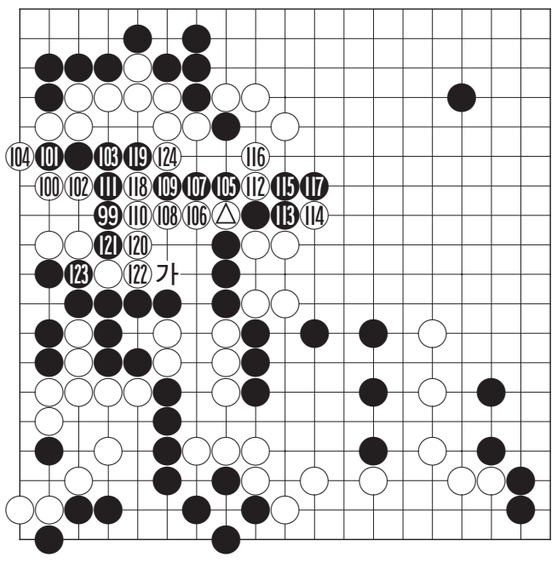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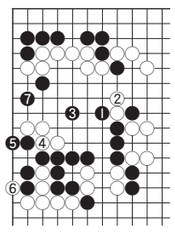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참사를 부른 저항

준결승 1국 5보(99~124)

黑 최영호 5단 (포스코) 白 김광식 5단 ((주)송림)





〈참고도〉

백 △가 강력한 절단으로 흑 대마가 위기에 몰린 장면이다. 그러나 사실 이 대마는 죽을 돌은 아니다. 그런데 최영호 5단은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흑 99로 두어 백을 압박했는데 이 수가 매우 위험한 수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 3으로 두어 빨리 살아두어야 했다. 백이 4로 두어 기어이 잡으러 온다면 흑 5를 선수한 다음 7로 두는 수가 있어서 거꾸로 백이 잡히게 된다.

지금은 흑 99가 오히려 악수가 되어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최영호 5단은 흑 105로 모는 대모험을 감행했는데 다음에서 보다시피 결과는 참담했다. 흑 111, 121등으로 거칠게 저항을 해보았으나 백 124까지 저항군이 몽땅 잡혀버리는 참사를 당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흑 '가'가 선수가 되어 주력부대인 흑 대마가 살았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과연 형세를 만회할 수가 있을 것인지.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8일(음 11월 4일 丁亥)

子 36년생 의지 해왔던 사람의 신변에 큰 변수가 있겠다. 48년생 건강관리법에 대해 특별한 정보를 얻는다. 60년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리라. 72년생 길사가 흉사로 변할 수도 있으니 방심 말라. 84년생 사소한 배려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행운의 숫자 : 14, 71

丑 37년생 가던 길을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49년생 어차피 진행된 일이라면 비장한 각오로 승부를 가리자. 61년생 오늘 꼭 마무리해야 한다. 73년생 호언장담을 삼가하고 신용을 쌓아가야 한다. 85년생 모든 일이 별 탈 없이 진행. 행운의 숫자 : 39, 52

寅 38년생 힘들었을 때의 협조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50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62년생 적절한 시기에 절실한 조치를 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74년생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87, 22

卯 39년생 결정적인 때에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51년생 상대의 까다로운 주문이 있겠다. 63년생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75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7, 74

辰 40년생 경위에 어긋남이 없고 이치에 닿아야 한다. 52년생 다수인의 향방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64년생 덤을 기대하다가는 충동적 행위를 하게 된다. 76년생 근황을 일일이 체크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63, 94

巳 41년생 실패와 기회는 공존하는 법이다. 53년생 주차장에서 인도를 통해 빠져나가는 차량을 주의하라. 65년생 상황에 맞게 분발해야 할 때이다. 77년생 유실물을 습득할 수도 있으니 즉시 신고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10

午 42년생 한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54년생 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혜안을 갖게 된다. 66년생 겉모습에 현혹되면 의외의 손실을 자초하게 된다. 78년생 제반사를 점검한 후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어라. 행운의 숫자 : 97, 88

未 43년생 방심하면 크게 체면을 구긴다. 55년생 길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확연해진다. 67년생 꾀가 많고 약삭빠른 이해 관계인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79년생 주변 환경의 변화로 기대했던 재물운이 매우 강해진다. 행운의 숫자 : 53, 44

申 44년생 사소한 집착으로 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56년생 안정권에 진입했으니 이젠 무난하다. 68년생 순리대로 행한 후에 공정한 결과를 기다려라. 80년생 협조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청하는 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1, 78

酉 45년생 아주 기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57년생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라. 69년생 자신만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81년생 공짜에는 대체로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79, 15

戌 46년생 훈계할 때에는 불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58년생 도움을 받더라도 마무리는 꼭 자신이 해야 한다. 70년생 선천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계발에 진력하라. 82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점검 후에 분석하라. 행운의 숫자 : 72, 64

亥 47년생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니라. 59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투자로 여겨라. 71년생 순간의 변수를 놓치지 말고 예의 주시하라. 83년생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먼저 깨우쳐라. 행운의 숫자 : 03, 40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우리말 나들이

좀 더/좀더 띄어쓰기

'좀 더'처럼 띄어 써야 할까요? '좀더'처럼 붙여 써야 할까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은 '조금'을 줄인 말로 부사입니다. '더'도 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사, 부사이므로 한 낱말이 아니고 각각 다른 낱말이라는 뜻입니다.

낱말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좀더'처럼 부사를 겹쳐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 말이 아주 빨리 달린다.'에서 '아주'도 부사이고 '빨리'도 부사인데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이때 '아주'와 '빨리'는 붙여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좀'과 '더'도 부사들이므로 붙여 쓰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러면 자꾸 붙여 쓰려고 할까요? 그것은 '좀'과 '더'가 각각 한 음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히 붙여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큰 것'처럼 연이어 한 음절 낱말이 나타날 때에 한하여 '좀더 큰 것'처럼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굿모닝 잉글리쉬

It's nothing
별 것 아니에요

A :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Nully.
B : Thanks. But it's nothing.
A : Don't be so humble.
B : Well, in fact, I'm a bit proud of myself.

A : 승진하신 것 축하드려요, 널리씨.
B : 감사합니다. 하지만 별것도 아닌데요.
A : 그렇게 겸손해 하지 마세요.
B : 음, 사실은요, 약간은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 It's nothing. = That's nothing.
* 오늘은 약간 쌀쌀하군요.
= It's a bit chilly today.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니하오 쫑구워

骑驴找驴 qí lǘ zhǎo lǘ
업은 애기 삼년 찾는다

'나귀(驴)를 타고서(骑) 나귀(驴)를 찾다(找).'라는 말로 원래는 '무슨 일을 하면서 더 나은 일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던 것이 '지금 본인에게 있는 것인데도 다른데서 찾는 것'을 말할 때 쓰입니다.

우리말 '업은 애기 삼년 찾는다'라는 말이겠죠. 우리말의 속담이지만 '뻥'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나 업고 있는 애기를 삼년이나 찾는다니….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요우 니혼고

品物を安く賣れば買いたいです。
물건을 싸게 팔면 사고 싶습니다

A : 駅の前に新しいデパートが出来ましたよ。
B : そうですか。安く売れば、買いたいです。
A : 南さんは安く売れば、やたらに買いますか。
B : いいえ、質が悪ければ、買いません。

A : 역 앞에 새로운 백화점이 생겼답니다.
B : 그렇습니까. 싸게 팔면 사고 싶습니다.
A : 미나미씨는 싸게 팔면 무조건 삽니까.
B : 아니요, 품질이 나쁘면 사지 않습니다.

[문법정리]
※ 가정형 「~하면」
⊙ 동사
(1) 5단 동사 어미 「う단」을→「え단」으로 고치고 + ば
▸ このボタンを押せば、テレビが付きます。
= 이 버튼을 누르면 TV가 켜집니다
(2) 1단 동사 어미 「る」를 빼고 + れば
▸ 説明書を見れば、使い方が分かります。
= 설명서를 보면 사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